

박우찬 소방국어 2017년 통합소방직 기출 분석 특강

- 2017년 4월 8일 시행 국어(B책형) 해설 -

◇ 17년 통합 소방직

2017년		문항 수	출제 영역
문법 4	문법론	4	단어 형성, 높임법, 합성동사와 구, 의미 관계
	어문 규범		
	어법과 예절		
문학 9	문학론		
	고전 문학	4	정지상 '송인', 윤선도 '만흥'(사자성어), 김만중 '사씨남정기', 박지원 '광문자전' ※ 고전 소설의 향유 방식(필사, 세책, 전기수 등)이 현대소설의 내용으로 제시되었다.
	현대 문학	5	정일근 '어머니의 그릇', 김광균 '추일서정', 이태준 '책', 이영서 '책과 노니는 집' 2문제
독해 7	독해	3	두 글의 비교, 다루지 않은 내용, 글의 내용 일치
	화법, 작문	4	대화 함축, 말하기 방식, 토론에서 사회자의 역할, 자료 활용
어휘 (1)	기본 어휘		
	관용구와 속담		
	한자, 한자성어	1	자연을 사랑함(고전 문학으로 처리)

1. <보기>와 관련된 대화 상황으로 적절한 것은? A형 1번

<보기>
실제 대화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협력의 원리를 위반하여 발화 의도를 함축적으로 전달하기도 한다.

- ① A: 나 수학 문제 좀 가르쳐 줄래?
B: (알고 있으면서) 나도 그 문제 모르겠는데.
- ② A: 와. 너 그림 정말 잘 그린다.
B: 아니야. 네가 좋게 봐 줘서 그렇지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아.
- ③ A: 엄마 생신 선물로 시계를 사 드리는 건 어떨까?
B: 난 시계는 별로야. 엄마가 전부터 읽고 싶어 하시던 책을 사 드리자.
- ④ A: 우리 내일 영화 보러 가지 않을래? 어제 개봉했는데 무척 재미있대.
B: 난 시험공부도 해야 하고 집안일도 도와드려야 하는데.

1. 정답 ④ [화법]

<해설> 협력의 원리를 위반하고 있는 선택항은 ①④이다. 협력의 원리 중 ①은 질의 격률(진실을 말해야 한다)을 위반하고 있고, ④는 관련성의 격률(주제와 관련돼야 한다)을 위반하고 있다. 이 중에서 발화 의도를 함축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은 ④가 된다. '영화를 보러 가자'라는 제안에 대하여 '영화를 보러 갈 수 없다'라는 숨은 의미를 전달한 경우이다. 이처럼 의도적으로 협력의 원리를 깨뜨려 숨은 의미를 전달하는 것을 '대화 함축'이라고 한다.

우찬국어 '공무원 국어 연구소' <http://cafe.daum.net/woo-chan>

한국소방사관학원

한국소방사관학원 박우찬 소방국어

2. 토론을 할 때에 사회자의 역할로 옳은 것을 묶은 것은? A형 2번

- ㉠ 토론의 논제를 미리 정리한다.
 ㉡ 토론에서 발언 순서를 정한다.
 ㉢ 토론자가 제시한 주장의 근거와 정당성을 판단한다.
 ㉣ 토론의 내용을 중간에서 정리하고, 동등한 참여 기회를 부여한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2. 정답 ② [화법]

<해설> 토론을 할 때 사회자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토론을 진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회자가 토론자의 주장에 관하여 그 근거와 정당성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3. 다음 (가), (나)의 자료를 활용하여 글을 쓸 때, 적절한 방안이 아닌 것은? A형 3번

(가) 통계 자료					
기부를 하지 않는 이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관심 부족	기부금 모금 단체에 대한 불신	요청을 받은 적이 없어서	기타
	60.9%	18.3%	8.2%	7.8%	4.8%
기부 관련 필요한 것	부유층의 모범적 기부	기부금 모금 단체의 자금 운용의 투명성 강화	기부에 대한 인식 개선	기부 방법의 편리성	기타
	54.2%	19.6%	17.2%	4.9%	4.1%

(나) 연구 보고서

세계 기부 지수(World Giving Index)를 보면,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7위), 캄보디아(40위)보다도 낮은 실정이다. 이는 우리 사회가 기부를 자기 것에 대한 나눔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풍요를 기반으로 한 시혜적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 ① (가)를 활용하여 부유층이 모범적으로 기부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기부 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것임을 주장한다.
 ② (가)를 활용하여 기부금 모금 단체에 대한 불신이 기부 문화 활성화의 주된 걸림돌임을 제시한다.
 ③ (나)를 활용하여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의 기부 지수가 우리보다 높음을 제시하며 기부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한다.
 ④ (가), (나)를 활용하여 기부에 대한 생각이나 인식을 베푸는 것이 아닌 나누는 것으로 바뀌어야 할 필요성을 주장한다.

3. 정답 ② [작문]

<해설> 제시된 자료 (가)를 활용할 때 기부 문화 활성화의 주된 걸림돌은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인식'과 '관심 부족'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부금 모금 단체에 대한 불신'을 주된 걸림돌로 보기가 어렵다.

4. 다음 <보기>의 밑줄 친 ㉠~㉣에서 단어 형성 방법이 다른 하나는? A형 4번

<보기>

한국소방사관학원 박우찬 소방국어

할머니께서 젊으셨을 때에는 ㉠한겨울에도 ㉡맨손으로 차가운 물에 빨래를 하셨다고 한다. ㉢시퍼렇게 멎은 손과 가슴을 자식들의 재롱을 보며 달래셨을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 ① ㉠ 한겨울 ② ㉡ 맨손
③ ㉢ 시퍼렇게 ④ ㉣ 눈시울

4. 정답 ④ [단어 형성]

<해설> ‘눈시울’은 합성어이고, 나머지 선택항은 파생어이다.

- 시울: 약간 굽거나 흰 부분의 가장자리. 흔히 눈이나 입의 언저리를 이룰 때에 쓴다.

예) 시울이 뜨거워지다/시울이 젖다

[오답 풀이]

① 한(접두사)겨울(어근).

- 한-: ‘정확한’ 또는 ‘한창인’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예) 한가운데/한겨울/한낮/한밤중/한복판/한잠.

② 맨(접두사)손(어근).

- 맨-: ‘다른 것이 없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예) 맨눈/맨다리/맨땅/맨발/맨주먹.

③ 시(접두사)퍼렇게(어근).

- 시-: ‘매우 길고 선명하게’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예) 시꺼멓다/시뻘겋다/시뻘옅다/시커멓다

5. 다음 문장에서 ‘주체높임, 상대 높임, 객체높임’이 모두 사용된 문장은? A형 5번

- ① 제 동생은 이웃집 아주머니께 깎듯하게 인사를 해요.
② 아버지께서 할아버지께 진지 드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③ 우리 어머니께서는 식사를 하실 때마다 늘 정갈하게 드시고는 해.
④ 선생님께서 우리 어머니를 만나시고는 내 칭찬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몰라.

5. 정답 ② [높임법]

<해설> 아버지께서 할아버지께 진지 드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주체 높임법: 선어말 어미 ‘-시-’, 조사 ‘께서’, 특수 어휘 ‘진지, 들다’
- 객체 높임법: 조사 ‘께’
- 상대 높임법: 해요체 어미 ‘-어요’. 우리말에서 상대 높임법은 종결 어미에 의해 항상 실현된다.

6. <보기>의 ㉠에 해당되지 않는 예는? A형 6번

<보기>

두 개의 동사가 나란히 결합되더라도 그것이 새로운 단어로 만들어지는 ㉠합성동사인지는 단순히 문장의 일부를 이루는 구(句) 구성인지 구분해야 한다.

	예문	단어
①	채은이는 초초해지면 늘 입술을 깨문다.	깨물다
②	그들은 선생님을 몰라보고 버릇없게 굴었다.	몰라보다
③	그녀는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빵을 먹어버렸다.	먹어버리다
④	점장이가 알아듣게 설명하자 고객들의 표정이 금세 밝아졌다.	알아듣다

6. 정답 ③ [단어 형성]

<해설> '먹어버리다'는 '먹어▽버리다'를 「한글 맞춤법」 제47항 띄어쓰기 허용 규정에 의해 붙여 쓴 경우이다. '먹어▽버리다'는 본용언과 보조용언이 결합된 동사구이므로 합성 동사가 아니다.

• (-아/어) 버리다: [보조 동사] 앞말이 나타내는 행동이 이미 끝났음. 그 행동이 이루어진 결과, 말하는 이가 아쉬운 감정을 갖게 되었거나 또는 반대로 부담을 덜게 되었음.

[오답 풀이]

① 깨물다: '깨어'와 '물다'가 결합한 합성 동사. 아랫니와 윗니가 맞닿을 정도로 세게 물다.

예) 사탕을 깨물다/입술을 깨물다.

② 몰라보다: '몰라'와 '보다'가 결합한 합성 동사. 알 만한 사실이나 사물을 보고도 알아차리지 못하다.

예) 몰라보게 달라진 아이들/친구를 몰라보다.

④ 알아듣다: '알아'와 '듣다'가 결합한 합성 동사. 남의 말을 듣고 그 뜻을 알다.

예) 말귀를 알아듣다/알아듣게 타이르다.

7. 다음 중 의미관계가 다른 하나는? A형 7번

- ① 수사(修辭) - 은유(隱喻) ② 친숙(親熟) - 생경(生梗)
③ 비옥(肥沃) - 척박(瘠薄) ④ 달변(達辯) - 늘변(訥辯)

7. 정답 ① [단어들의 의미 관계]

<해설> '수사' 방식의 하나로 '은유'가 있다. 즉, 수사와 은유는 상하관계 또는 포함관계에 해당한다. 나머지 선택항은 모두 반의 관계이다.

[오답 풀이]

② 친숙(親熟): 친하여 익숙하고 허물이 없음. ↔ 생경(生梗): 두 사람 사이에 불화가 생김.

③ 비옥(肥沃): 땅이 겹고 기름짐. ↔ 척박(瘠薄): '척박하다'(땅이 기름지지 못하고 몹시 메마르다)의 어근.

④ 달변(達辯): 능숙하여 막힘이 없는 말. ↔ 늘변(訥辯): 더듬거리는 서툰 말솜씨.

8. 다음 밑줄 친 것과 의미상 거리가 먼 것은? A형 10번

누고셔 삼공(三公)도곤 낫다하더니 만승(萬乘)이 이만하랴
이제와 헤어든 소부 허유(巢父許由) | 낙dot더라.
아마도 임천한흥(林泉閑興)을 비길 곳이 업세라. - 윤선도, 「만흥(漫興)」

- ① 맥수지탄(麥秀之嘆) ② 연하고질(煙霞痼疾)
③ 천석고황(泉石膏肓) ④ 강호한정(江湖閑情)

8. 정답 ① [한자 성어]

<해설> '임천한흥(林泉閑興)'은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지내는 흥취를 말한다. 이와 의미상 연관이 없는 한자성어는 '맥수지탄(麥秀之嘆)'이다. '맥수지탄(麥秀之嘆)'은 '고국의 멸망을 한탄함을 이르는 말'이다. 나머지 선택항은 모두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뜻한다.

[오답 풀이]

②③ 연하고질(煙霞痼疾), 천석고황(泉石膏肓): 자연의 아름다운 경치를 몹시 사랑하고 즐기는 성벽(性癖).

④ 강호한정(江湖閑情):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한가로운 심정을 말한다.

<해석> 누가 (자연이) 삼공보다 낫다고 하더니 만승(천자의 지위)이 이만하랴.
이제와 생각하니 소부와 허유가 영리하다.
아마도 자연 속에서 한가로이 지내는 흥취는 비할 데가 없어라. - 제4수 -

9. 다음 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형 11번

비 그친 긴 강둑엔 풀빛이 짙어 가고,
 임 보내는 남포에 슬픈 노래 일어나네.
 대동강 물이 언제 다 마를 날 있으랴,
 이별하며 흘린 눈물 해마다 물결에 보태지고 있을지니.
 - 정지상, 「송인(送人)」

- ① 이별을 하는 상황에서 임을 원망하는 정서를 나타내고 있다.
- ② 이별 후에도 계속해서 슬퍼하며 임을 그리워할 것임을 보여 준다.
- ③ 과장 없이 현재의 상황을 사실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 ④ 시적 화자가 자신을 객관적으로 표현하면서 감정을 절제하고 있다.

9. 정답 ② [한시]

<해설> 해마다 이별의 눈물이 강물이 된다는 발상을 통해 이별 후에도 계속해서 임을 그리워할 것임을 보여 준다.

<해제> 1. 주제: 이별의 슬픔
 2. 특징
 ① 짙어가는 풀(자연)과 이별을 하는 시적 화자(인간)가 견주어지면서 슬픔의 정서가 심화되고 있다.
 ② 해마다 이별의 눈물이 강물이 된다는 발상을 통해 이별 후에도 계속해서 임을 그리워할 것임을 보여 준다. 또는 사람들이 흘리는 이별의 눈물과 시적 화자가 임을 그리워하여 흘리는 눈물이 대동강 물에 보태진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③ 전구와 결구에서는 도치법과 과장법을 사용하여 이별의 슬픔을 잘 표현하고 있다.

10. 다음 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당대 사회의 정신이 아닌 것은? A형 12번

유 한림의 나이가 삼십에 이르렀으나 슬하에 자녀가 없어서 망연하였다. 사 부인이 이를 근심하고 한림에게 호소하였다.
 “저의 기질이 허약하고 원기가 일정치 못하여 당신과 십여 년을 동거하였으나 일점 혈육이 없으니 불효삼천 가지 죄에 무자(無子)의 죄가 가장 크다 하여 저의 무자한 죄가 존문에 용납하지 못할 것이나 당신의 관용하신 덕으로 지금까지 부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하매 당신은 누대독신(累代獨身)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유씨 종사가 위태로우니 저를 개의치 마시고 어진 여인을 첩으로 취하여 득남득녀하면 가문의 경사일 뿐 아니라 저의 죄도 면할 수 있을까 합니다.”
 유 한림은 허허 웃고서 부인을 위로하여 말하기를,
 “소생이 없다 하여 당신을 두고 다른 첩을 얻을 수야 있소. 첩이 들어오면 집안이 어지러워지는 근본인데 당신은 왜 화근을 자청하는 거요? 그것은 천만부당하니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오.”
 “제가 비록 용렬하나 세상 보통 여자의 투기를 잘 알고 경계하겠으니 제 걱정은 마시오. 태우의 일처일첩은 옛날에도 미덕이 되었으니 제가 비록 덕이 없으나 세속 여자의 투기는 본받지 않겠습니다.”
 - 김만중, 「사씨남정기(謝氏南征記)」

- ① 아이를 낳지 못하면 첩을 통해서라도 대를 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 ② 여인이 투기하는 것을 옳지 못하다고 보았다.
- ③ 본처가 있더라도 첩을 들이는 것을 당연시하였다.
- ④ 가부장적 가족 제도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10. 정답 ④ [고전 소설]

<해설> 위 소설에서 유씨 부인은 첩을 들어서라도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한다고 말하며 가부장적 가족 제도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 '가부장적 가족 제도'는 남성이 가족 내에서 중심적인 지위를 지니고 지배권을 행사하는 가족 형태를 말한다.

11. 다음 시에서 '어머니의 그릇'과 이미지가 다른 것은? A형 8번

어머니는 그릇이라 쓰고 읽으신다.
그릇이 아니라 그릇이 바른 말이지만
어머니에게 그릇은 그릇이다.
물을 담아 오신 어머니의 그릇을 앞에 두고
그릇, 그릇 중얼거려 보면
그릇에 담긴 물이 ㉠편안한 수평을 찾고
어머니의 그릇에 담겨졌던 모든 것들이
사람의 체온처럼 따뜻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나는 학교에서 그릇이라 배웠지만
어머니는 인생을 통해 그릇이라 배웠다
그래서 내가 담는 한 그릇의 물과
어머니가 담는 한 그릇의 물은 다르다
말 하나가 살아남아 빛나기 위해서는
말과 하나가 되는 사랑이 있어야 하는데
어머니는 ㉡어머니의 삶을 통해 말을 만드셨고
나는 사전을 통해 쉽게 말을 찾았다.
무릇 시인이란 ㉢하찮은 것들의 이름이라도
뜨겁게 살아 있도록 불러 주어야 하는데
두툼한 개정판 국어사전을 자랑처럼 옆에 두고
㉣서정시를 쓰는 내가 부끄러워진다. - 정일근, 「어머니의 그릇」

- ① ㉠편안한 수평 ② ㉡어머니의 삶
③ ㉢하찮은 것들 ④ ㉣서정시

11. 정답 ④ [현대시]

<해설> 앞뒤의 문맥을 파악하면 시어의 함축적 의미를 알 수 있다. '어머니의 그릇'은 따뜻한 삶과 사랑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나 '서정시'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시, 뜨거운 삶과 사랑이 담겨 있지 않은 시를 말한다. '개정판 국어사전'도 죽은 언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편안한 수평: 사람의 체온처럼 따뜻했다
② 어머니의 삶: 사랑이 있는 삶
③ 하찮은 것들: 뜨겁게 살아 있도록 불러 주어야 하는 것들

12. 다음 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A형 9번

낙엽은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지폐.
포화(砲火)에 이지러진
도룬 시의 가을 하늘을 생각해 한다.
길은 한 줄기 구겨진 넥타이처럼 풀어져

일광(日光)의 폭포 속으로 사라지고
조그만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새로 두 시의 급행 열차가 들을 달린다.
포플라나무의 근골(筋骨) 사이로
공장의 지붕은 흰 이빨을 드러내인 채
한 가닥 구부러진 철책(鐵柵)이 바람에 나부끼고
그 위에 셀로판지로 만든 구름이 하나.
자욱한 풀벌레 소리 발길로 차며
호울로 황량(荒涼)한 생각 버릴 곳 없어
허공에 띄우는 돌팔매 하나.
기울어진 풍경의 장막(帳幕) 저쪽에
고독한 반원(半圓)을 긋고 잠기어 간다.

- 김광균, 「추일서정」

- ①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선경후정 방식으로 다채로운 정서를 보여 주고 있다.
- ③ 화자를 표면에 드러내어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 ④ 이국적, 도시적 이미지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12. 정답 ④ [현대시]

[복원] ①은 복원자의 기억에 의하여 임의로 구성되었다.

<해설> ‘폴란드 망명 정부, 포화, 도룬 시’ 등에서 이국적 이미지가 나타나고, ‘담배 연기, 급행열차, 공장
의 지붕, 철책’ 등에서 도시적 이미지가 나타난다. ‘낙엽 → 길 → 열차 → 공장’ 등으로 시선이 이동하면
서 시상이 전개된다. 크게 보면 이러한 정경이 서술되고 뒤에 정서가 제시되는 선경후정의 시상 전개 방
식도 나타난다.

[오답 풀이]

② 선경후정의 시상 전개 방식은 맞지만 다채로운 정서를 나타낸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도시 속에
서 느끼는 고독과 우수가 이 시에 나타나는 정서이다.

13. 다음 글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A형 13번

광문(廣文)이란 사람은 거지였다. 일찍이 종루(鐘樓) 거리 시전(市廛)을 돌아다니며
밥을 빌어먹었는데, 나중에 여러 거지아이들이 그를 패두(牌頭)로 추대하여 그들의 소
굴을 지키게 했다.

하루는 날씨가 춥고 진눈깨비가 내리는데 모든 거지들이 구걸을 나가고 한 아이만
이 병이 나서 따라 나가지 못했다. 잠시 후 거지아이는 추위로 아픔이 심해지니, 그
신음소리가 매우 비참했다. 광문은 그것을 불쌍히 여기고 구걸을 나가 음식을 얻어왔
다. 그가 병든 아이에게 음식을 먹이려 했으나 아이는 이미 죽어 있었다. 이윽고 여러
거지아이들이 돌아왔다. 그들은 광문이 그 아이를 죽이지 않았나 의심해서 광문을 못
매질하고 내쫓았다.

광문은 밤에 영금영금 기어서 마을 안의 어떤 집으로 들어갔다. 그 집의 개가 놀라
서 짖는 바람에 집주인이 광문을 잡아서 묶었다. 광문이 큰 소리로 말했다.

“나는 나를 해치려는 자들을 피해서 온 것이지, 감히 도둑질을 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만약 영감님께서 믿지 않으신다면 내일 아침에 시전에 나가 밝혀 드리겠습
니다.”

그 말이 매우 순박해서 집주인은 마음속으로 광문이 도적이 아님을 깨닫고 새벽녘에 풀어 주었다. 광문은 고맙다는 말을 하고 거적때기를 하나 얻어서 집을 떠났다. 하지만 집주인은 끝내 이상히 여겨 그 뒤를 따라갔다. 그는 여러 거지들이 시체 하나를 끌고 가 수표교(水標橋) 다리 아래로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광문은 다리 아래 숨어 있다가 시체를 거적때기에 싸 짊어지고 몰래 떠나더니 서쪽 교외의 무덤 사이에 그것을 묻고 울면서 무어라고 중얼거렸다. 이때 주인이 광문을 붙들어 사연을 물으니, 광문은 전의 일부터 어젯밤의 상황까지 모두 이야기했다. 주인은 광문이 의로운 자라고 여겨 그를 데리고 집으로 가서 옷을 갈아입히고 그를 후하게 대우해 주었다. 그리고 그를 약방을 하는 부자에게 추천해서 고용살이를 하게끔 해주었다.

- 박지원, 「광문자전(廣文者傳)」

- ① 당시에 실존하던 인물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소설이다.
- ② 천한 신분이지만 선한 행동을 함으로써 새 인간상을 보여준다.
- ③ 광문은 입신양명의 가치를 바람직하게 여기고 있다.
- ④ 광문을 통해 위선적인 사대부 윤리를 비판하고 있다.

13. 정답 ② [고전 소설]

[복원] ①③④는 복원자의 기억에 의해 임의로 구성된 선택항이다.

<해설> 걸인이지만 의로움을 보여주는 광문을 통해 당대의 바람직한 인간상을 제시하고 있다.

광문자전(廣文者傳)	걸인이지만 마음씨가 따뜻하고 소탈하며 사람의 도리를 아는 광문을 예찬한 작품이다.
------------	---

14. 다음 글의 전개 방식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A형 14번

가끔 책을 빌리러 오는 친구가 있다. 나는 적이 질투를 느낀다. 흔히 첫 한두 페이지밖에 읽지 못하고 둔 책이기 때문이다. 그가 나에게 속삭여 주려던 아름다운 긴 이야기를 다른 사나에게 먼저 해버리려 가기 때문이다. 가면 여러 날 뒤에, 나는 아주 까맣게 잊어버렸을 때 그는 한껏 피로해져서 초라해져서 돌아오는 것이다. 친구는 고맙다는 말만으로 물러가지 않고, 그를 평가까지 하는 것이다. 나는 그런 경우에 그 책에 대하여는 전혀 흥미를 잃어버리는 수가 많다.

빌려 나간 책은 영원히 노라가 되어 버리는 것도 있다.

이러는 나도 남의 책을 가끔 빌려 온다. 약속한 기간을 넘긴 것도 몇 권 있다. 그러기에 책을 빌리는 사람도 도적이요, 빌려 주는 사람도 도적이란 서적 윤리가 따로 있는 것이다.

일생에 천 권을 빌려 보고 구백구십구 권을 돌려보내고 죽는다면 그는 최우등의 성적이다.

그러나 남은 한 권 때문에 도적은 도적이다. 책을 남에게 빌려만 주고 저는 남의 것을 한 권도 빌리지 않기란 천 권에서 구백구십 권을 돌려보내기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빌리는 자나 빌려 주는 자나 책에 있어서는 다 도적됨을 면치 못한다.

그러나 책은 역시 빌려야 한다. 진리와 예술을 감금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책은 물질 이상이다. 영양이나 귀부인들 초대할 듯 결코 땀이나 때가 묻은 손을 대어서는 실례다. 책은 세수를 할 줄 모르는 미인이다. 책에만은 나는 봉건적인 여성관이다. 너무 건강해선 무거워선 안 된다. 가볍고 알파하고 뚜껑도 예전 능화지(菱花紙)처럼 부드러워 한손에 말아 쥐고 누워서도 읽기 좋기를 탐낸다. 그러나 덮어 놓으면 떠들리거나 구김살이 잡히지 않고 이내 고요히 제 태(態)로 돌아가는 인종(忍從)이 있기를 바란다고 할까.

- 이태준, 「책」

- ① 대상에 관하여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다.
- ② 대상에 관하여 비유적으로 다루고 있다.
- ③ 대상에 관하여 인격을 부여하여 친밀감을 느끼게 한다.
- ④ 체험을 바탕으로 대상을 서술하고 있다.

14. 정답 ① [수필]

<해설> 책을 빌리고 빌려주는 일, 책 자체에 관하여 자유롭게 서술하고 있는 수필이다. 책을 빌린 체험을 바탕으로 '책'에 관하여 말하고 있을 뿐이지, 책을 비판하지는 않는다.

15. 다음 (가), (나)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형 15번

(가) 인자하지 않고서 제후가 된 자는 있었지만, 인자하지 않고서 천자가 된 자는 아직까지 있지 않았다. - 맹자, 『맹자』

(나) 군주가 사랑받는 대상이 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좋은가. 우리는 두 가지 모두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랑과 두려움을 동시에 받는다는 것은 어렵다. 만약 우리가 양자 중의 어느 하나를 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할 때, 사랑받는 것보다는 두려움을 받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 왜냐하면 대체로 인간이란 은혜를 모르고 변덕스러우며 허위적이고 위험을 피하려고 고심하며 이익에 탐욕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이다.

- 마키아벨리, 『군주론』

- ① (가)와 (나)는 서로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동양과 서양의 문화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형식적인 삼단 논법을 활용하고 있다.
- ④ (가)는 이상적인 관점을, (나)는 현실적인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

15. 정답 ③ [글의 전개 방식]

<해설> (가)와 (나)의 주장에는 '대전제, 소전제, 결론'의 구성을 보여 주는 삼단 논법이 활용되지 않았다.

16. 다음 글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A형 18번

대중 매체는 중요한 사회화 기관으로, 대중은 다양한 대중 매체를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행동 방식과 사고방식을 배울 수 있다. 대중 매체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사회의 가치와 규범을 내면화하여 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범죄에 대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은 사회적 일탈 행위를 공개함으로써 기존 규범을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를 재정립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그러나 지배적인 규범이나 가치가 주입되면 사회 구성원의 가치와 사고방식이 획일화될 수 있고,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이 위축될 수도 있다. 더불어 대중 매체에 노출된 사회적 일탈 행동을 배워서 모방하는 등의 사회화 역기능이 나타나기도 한다.

사회 구성원들에게 삶의 즐거움을 제공하는 오락 기능은 오늘날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중 매체의 오락 기능은 시청각 메시지의 전달이 가능한 텔레비전이 등장하고,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주의가 심화됨에 따라 더욱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시청률 경쟁에 따라 선정적이고 폭력적, 자극적인 프로그램이 등장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대중이 오락 기능에 지나치게 몰입하면 사회·정치적 무관심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한국소방사관학원 박우찬 소방국어

- ① 사회화 기능의 긍정적 영향 ② 사회화 기능의 부정적 영향
③ 오락 기능의 부정적 영향 ④ 정보수집의 긍정적 영향

16. 정답 ④ [글의 화제 파악]

<해설> 대중 매체는 우리 사회에 대한 정보를 수집·정리하여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사회 구성원은 사회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 대학 입시 제도 변경과 관련된 뉴스를 듣고, 입시 전략을 수정한다면 이는 대중 매체의 정보 제공 기능을 활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은 자칫 사회 구성원들에게 심리적 긴장감이나 공포를 유발할 수도 있다.

[17~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장이는 하루빨리 한문 ㉠필사를 하고 싶었다. 그것이 품삯도 더 받고, 필사장이로서 인정받는 길이었다. 하지만 요즘에는 한문 필사보다는 언문 필사 일이 많았다.
언문 소설은 날이 갈수록 인기가 좋았다. 모처럼 친정 나들이에 나선 양반집 부인들은 언문으로 된 이야기책을 잔뜩 빌려다 읽으며 시집살이의 시름을 달래기도 했다. ㉡세책집에서는 굳이 비싼 책을 사지 않아도 빌려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언문 소설에 빠져 들어 밤을 새우고 끼니를 걸렀다.
(나) 장이는 책값을 치르는 손님을 알아보았다.
“㉢전기수 어른이셨군요. 급히 찾으신 책이라 종이에 기름 먹일 시간은 없었습니다.”
“둘러 볼 책도 아는데 기름은 뭘……. 장이 네가 필사한 것이냐?” / 장이가 머리를 긁적였다.
“지난번 가져간 책은 재미를 좀 보셨어요?”
“아, ‘소대성전’ 말이구나. 물론 인기가 좋았지. 한양의 ㉣저자를 다 돌고 안성 장으로 갔다가 살살 돌아오려 했는데, 한양만 돌아서도 장사가 괜찮아 그냥 눌러앉았다.”
- 이영서, 『책과 노니는 집』

17. 위 글의 밑줄 친 단어 ㉠~㉣에 대한 뜻풀이로 옳은 것은?

- ① ㉠필사: 죽을힘을 다하여 노력함
② ㉡세책집: 돈을 받고 책을 수선하는 곳
③ ㉢전기수: 전쟁에서 공을 세운 사람
④ ㉣저자: ‘시장(市場)’을 예스럽게 이르는 말.

17. 정답 ④ [맥락적 어휘]

<해설> ‘저자’에 대한 뜻풀이가 맞다. (<저재>)

[오답 풀이]

- ① 필사(筆寫): 베끼어 씀.
② 세책집(貰冊-): 세를 받고 책을 빌려주는 책방. ≒대본점·세책가·세책점.
③ 전기수(傳奇叟): 예전에, 이야기책을 전문적으로 읽어 주던 사람.

18. 위 글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A형 20번

- ① (가)에서 그 당시에 독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② (나)에서 그 당시에도 베스트셀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③ 글을 베끼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소년이 이 소설의 주인공이다.
④ 위 글은 현재와 과거의 독서 방식에 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

18. 정답 ① [현대소설 지문 독해]

<해설> (가)는 언문 필사 일이 많다는 점(1단락), 언문 소설이 인기가 좋다는 점(2단락)을 다루고 있다. 즉, (가)는 언문 소설의 유행을 화제로 삼고 있기 때문에 '독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독서'라는 용어 자체도 막연할뿐더러, 언문 소설의 '사회적 문제'를 문제 삼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오답 풀이]

④ 위 글이 과거(조선시대)와 현재(지금)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되는지를 묻고 있다. 이는 위 글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위 글에 나타나는 역사적 사실이 과거와 현재의 독서 방식을 알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되는지를 묻고 있다.

- 공통점: 조선시대 세책의 존재다. 책 대여 방식은 지금의 독서 방식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상업주의의 발달에 따라 책을 대여하는 가게인 세책점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점은 고전 소설사에서 근대성(지금과의 연속성)의 면모를 보여주는 상당히 가치 있는 사실로 평가되고 있다.

- 차이점: 필사 방식과 전기수의 존재가 차이점이다. 인쇄술이 발달한 현재에는 책을 손으로 베껴서 읽는 방식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시각 문화가 발달한 현재에는 책을 낭송해 주는 '전기수'의 존재가 낯설다. 당시 조선시대에는 소설을 읽어 주고 듣는 청각 문화가 발달했던 것이다.

19. 다음 글에 나타나는 말하기 방식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A형 16번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떨쳐 일어나 진정한 의미의 국가 이념을 실천하리라는 꿈, 즉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진리를 우리 모두가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이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서 과거에 노예로 살았던 부모의 후손과 그 노예의 주인이 낳은 후손이 식탁에 함께 둘러앉아 형제애를 나누는 날이 언젠가 오리라는 꿈입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삭막한 사막으로 뒤덮인 채 불의와 억압의 열기에 신음하던 미시시피 주 조차도 자유와 정의가 실현되는 오아시스로 탈바꿈되리라는 꿈입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저의 네 자식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날이 언젠가 오리라는 꿈입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주지사가 연방 정부의 정책 개입과 연방법 실시를 거부한다는 말만 늘어놓는 엘라배마 주에서도, 흑인 소년, 소녀가 백인 소년, 소녀와 서로 손잡고 형제자매처럼 함께 걸어다닐 수 있는 상황으로 언젠가 탈바꿈되리라는 꿈입니다.

- 마틴 루터 킹, 연설문

- ①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전개하고 있다.
- ② 반복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고 있다.
- ③ 자신의 꿈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 ④ 개인적 꿈이 사회적 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19. 정답 ① [화법] [복원] ②~③은 복원자의 기억에 의해 임의로 구성된 선택항입니다.

<해설> 질문에 답하는 방식은 나타나지 않는다. 자신의 꿈을 들려주는 방식을 통해 연설문을 전개하고 있다.

20.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A형 17번

그리스인들은 아름다움을 수에서 찾았다. 아름다움의 바탕에는 수적 비례관계가 있다. 이것이 저 멀리 피타고라스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그리스의 전통적 관념이다. 가령 '벨베데레의 아폴론'과 '밀로의 비너스'의 상반신과 하반신이 황금분할을 이루고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라. 그리스인들에게 아름

다운 신체를 창조하는 것은 곧 신체의 부분들 사이의 이상적인 비례관계를 확정하는 것을 의미했다. 한마디로 그들에게 미란 무엇보다 '양(量)'의 문제였다.

헬레니즘 시대에 들어오면 이 전통적인 관념에 변화가 생긴다. 그 변화는 당시를 지배하던 신플라톤주의의 정신적 분위기와 관계가 있다. 가령 플라톤에게 '이데아'는 이상적 형태가 모여 있는 곳이었다. 하지만 플로티노스는 '일자'를 무엇보다도 빛으로 표상했다. 즉 만물에 부여하는 원리가 형에서 빛으로 바뀐 것이다. 빛은 부분으로 나뉘지 않는다. 따라서 거기에 수적 비례도 있을 수 없다. 한마디로 미란 무엇보다 '질(質)'의 문제라는 이야기다.

미가 수에 달려 있다고 보는 견해를 미에 대한 '형식적 정의'라고 한다. 반면 미의 본질을 수량화할 수 없는 어떤 질적 특성에서 찾는 견해를 미에 대한 '실질적 정의'라고 부른다. 한마디로 헬레니즘 시기에 들어와 미의 관념이 형식적 정의에서 실질적 정의로 바뀐 셈인데, 이는 미적 관념의 역사에서 실로 혁명적(?)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플로티노스가 도입한 이 새로운 정의가 훗날 중세 문명의 미감을 결정하게 된다.

- ① 그리스인들은 아름다움을 이상적인 비례 관계에서 찾았다.
- ② 플로티노스에게 아름다움이란 질적인 문제였다.
- ③ 미의 본질을 수량화할 수 없는 특성에서 찾는 견해를 '실질적 정의'라고 한다.
- ④ 헬레니즘의 미적 관념은 실질적인 정의에서 형식적인 정의로 변화하였다.

20. 정답 ④ [내용 일치]

[복원] 선택항 ④를 제외하고 ①~③은 복원자가 당시의 기억을 살려 임의로 구성한 선택항입니다.

<해설> 셋째 단락에서 헬레니즘 시기에 들어와 미의 관념이 형식적 정의에서 실질적 정의로 바뀌었다고 본다.

[출처] 진중권, 『서양미술사』

* 기출 특강을 갈무리하며

수험생 여러분, 예상하지 못한 유형에 많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저도 시험지를 받아들자마자 '올해는 유형이 확실하게 달라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 안배와 정확한 독해 실력이 이번 국어 시험의 관건이었습니다.

20문제 중에서 5분의 1도 되지 않던 독해 유형 문제가 이번에 대거 출제되었습니다. 문학 지문을 활용한 독해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체감상 느끼는 독해 문제는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올해의 출제 경향이 2018년으로 이어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자세한 학습 방법은 다음 무료 특강에서 다루겠습니다. 5년간 통합소방직 출제 경향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출제 방향을 진단하려고 합니다. 무료 특강 제목은 '이것이 소방국어다. - 5년간 출제 경향 분석 및 미리 보는 2018년 출제 문제'입니다.

복원이 부족한 부분은 제가 임의로 보완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 수험생들의 도움과 한국소방사관학원 신설동 캠퍼스 국봉 선생님의 도움에 힘입어 완전한 복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국봉 선생님께서 복원된 자료를 보내 주셔서 힘든 작업을 쉽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수험생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며 기출 분석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4월 17일 박우찬 씀